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 31 권 제 3 호
Korean J Phys Anthropol Vol. 31, No. 3 (2018) pp. 71~76
https://doi.org/10.11637/kjpa.2018.31.3.71

Check for updates

Review Article

이쾌대 해부학 그림의 미술해부학적 성취와 한계

윤 관 현

인천가톨릭대학교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바이오메디컬아트전공

(2018년 9월 9일 접수, 2018년 9월 21일 수정접수, 2018년 9월 21일 게재승인)

간추림 : 화가 이쾌대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에 거제포로수용소에서 제자였던 이주영에게 미술해부학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해부학 그림을 제작하였다. 전체 2권으로 구성되었으며, 48쪽에 걸쳐 74개의 그림이 설명과 함께 교본 형태로 제작되었다. 목차는 전신비례, 뼈대, 근육, 머리 순서로 그려져 있으며, 부위별로는 몸통 4개, 머리 51개, 팔 7개, 다리 9개, 전신 3개였다. 머리와 얼굴에 대한 그림은 수량도 많고 자세히 그려져 있었으나, 뼈 그림들은 오류가 많았고, 근육 그림들은 구조들 간의 경계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미술해부학에 필수적인 형태, 비례, 동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머리 부위에 할애된 점과 비례와 동세가 순서와 상관없이 배치되는 등 목차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쾌대의 월북으로 그의 그림들이 널리 쓰이지 못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우나, 그의 해부학 그림들은 당시 일본 미술해부학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미술해부학 도입기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생각된다.

찾아보기 낱말 : 이쾌대, 미술해부학, 해부학 그림, 미술

서 론

월북화가인 이쾌대(李快大, 1913~1965)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는 비극적인 격동기에 활동하였다. 남한서는 1991년 '월북작가 이쾌대전'이 열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지만, 오늘날에는 '20세기 한국미술계에서 백남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선정되는 등 한국근대미술사의 주요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1]. 2015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하여 출간된 "거장 이쾌대-해방의 대서사"에 실린 작품 중 90% 이상이 인체를 소재로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인물화를 즐겨 그렸다[2]. 이처럼 인체를 주된 소재로 그렸던 이쾌대에게 해부학은 매우 밀접한 분야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제포로수용소 시절에 제작한 해부학 그림이 2010년에 공개되면서 그가 해부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중요한 실마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역동적인 생애와 더불어 작품에 관한 연구는 1995년에 김진송이 출간한 『이쾌대』를 필두로 2016년 신수경의 『이쾌대의 해방기 행적과 〈군상〉 연작 연구』까지 30여건 이상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3, 4]. 이에 비해 그의 해부학 그림에 관한 연구는 2011년 『시대의 눈』에 김인혜가 발표한 『이쾌대 연구: 인체 해부학 도해서를 중심으로』가 유일하다[5]. 하지만 그 연구에서는 해부학적 관점이 다소 결여되어있고, 또한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11쪽에 걸친 해부학 그림 15장이 2015년에 추가로 공개되었다. 때문에 이후 공개된 그림을 포함한 이쾌대 해부학 그림 전체에 대해 추가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또한 미술해부학적 관점으로 새롭게 분석하여 이쾌대 해부학 그림의 성취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8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교신저자 : 윤관현(인천가톨릭대학교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바이오메디컬아트전공)
전자우편 : artanato@naver.com

ⓒ 2018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2287-626X (Online) · ISSN 1225-150X (Print)

이쾌대의 활동

1. 이쾌대의 인체에 대한 관심과 영향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던 이쾌대는 휘문고보 재학 당시 미술교사였던 장발의 권유로 미술을 시작하였으며, 일본의 제국미술학교(현재 무사시노미술대학, 武蔵野美術大学)에 1933년 입학하여 1938년에 졸업하였다. 입학 후 풍경화나 정물을 주로 그리던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인물화에 주력하면서 수많은 인체 소묘와 채색 연습을 통해 누드를 비롯하여 군상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운동감과 색채 변화의 표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냈다. 당시 제국미술학교는 기초 교육으로 인체데생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1학년 과목 중 미술해부학은 필수과목으로 니시다 마사아키(西田正秋)가 지도하였다[6]. 니시다는 1932년부터 제국미술학교에서 강의하였으며, 그림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쾌대는 일본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1946년에 성북회화연구소에서 미술해부학을 수업하였다. 당시 수업은 교과과정은 없었지만 학생들이 많이 모일 때는 그가 직접 미술해부학 강의를 하곤 했으며, 가끔 누드모델을 불러 스케치를 했다고 한다[7]. 또한 그가 남긴 화집과 스크랩 등의 자료에는 인물화와 누드 소묘가 다수여서, 인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와 조각 이미지가 많아서 서양 고전미술에 대한 이쾌대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군상〉 시리즈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한국의 미켈란젤로'라고도 일컬을 만큼 그의 대표작들은 나체 군상들로 구성되었고, 화면 구성의 웅대함과 신체의 역동적인 동세 등에서 미켈란젤로의 벽화와 상당히 유사하다. 근육 양이 다소 적지만 다부진 한국인의 신체를 그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상 IV〉와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벽화 군상들 사이의 유사성은 상당히 높다[8]. 그는 군상을 제작할 때 별도의 스케치 없이 바로 밑그림을 그렸는데, 이는 해부학을 바탕으로 수많은 드로잉을 통해 인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body points in the anatomical drawing of Lee Quede

Region	Bones	Muscles	Structure	Numbers
Body	2	2	−	4
Head	2	2	47	51
Arm	2	2	5	7
Leg	3	2	4	9
Whole body	−	−	3	3

2. 해부학 그림의 제작 배경과 내용

이쾌대의 해부학 그림은 한국전쟁중이던 1951년에 당시 거제포로수용소에서 포로로 1년여를 같이 지냈던 이주영에게 미술해부학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저술하였다. 이후 그의 해부학 그림은 이주영이 50여년 보관해오다, 그의 아들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전체 2권으로 구성되었으며, 표지에는 각각 『미술수첩』, 『미술수첩2』라고 쓰여 있다. 그림은 갱지를 잘라서 연필로 그렸으며 48쪽에 걸쳐 74개가 설명과 함께 교본 형태로 제작되었다. 『미술수첩』에 실린 37쪽 59개가 2010년에 먼저 공개되었고, 『미술수첩2』에 있던 나머지 11쪽 15개가 2015년에 공개되어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주영의 아들들 인터뷰에 따르면 이주영은 배운 내용을 땅바닥에 그리면서 습득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해부학 그림 교본은 수개월에 걸쳐 완성되었다[5]. 책은 전신비례, 뼈대, 근육, 머리 순서로 그려져 있으며, 동세와 관련된 부분은 근육과 머리 사이에 2개, 머리 사이에 2개로 흩어져 있었다. 내용별로는 뼈대 9개, 근육 6개 그리고 구조 설명이 59개였으며, 부위별로는 몸통 4개, 머리 51개, 팔 7개, 다리 9개, 전신 3개로 머리 부위가 가장 많았다(Table 1). 머리에 관한 그림이 특히 많았는데 이는 다시 머리와 얼굴의 외곽 형태

Table 2. Numbers of errors in the anatomical drawing of Lee Quede

Items	Contents	Page
Thoracic cage	The division into true and false ribs is incorrect	3
Humerus	The length of the neck of the humerus is drawn too long like the neck of a femur	3
Humerus	Compared to the clavicle and the scapula, the length of the humerus is too short	3
Radius & ulna	The characteristics of the radius and ulna are drawn incorrectly	4
Elbow joint	The humeroulnar and humeroradial joints are drawn incorrectly	4
Pelvis	The angle of the pelvic inlet is too close to the horizontal plane	5
Patella	It is misdrawn to seem as if it functions jointly with the tibia	6
Pubic symphysis	It is drawn too far to the anterior, more so than the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7
Line of gravity	The line of gravity should be further posterior than the hip joint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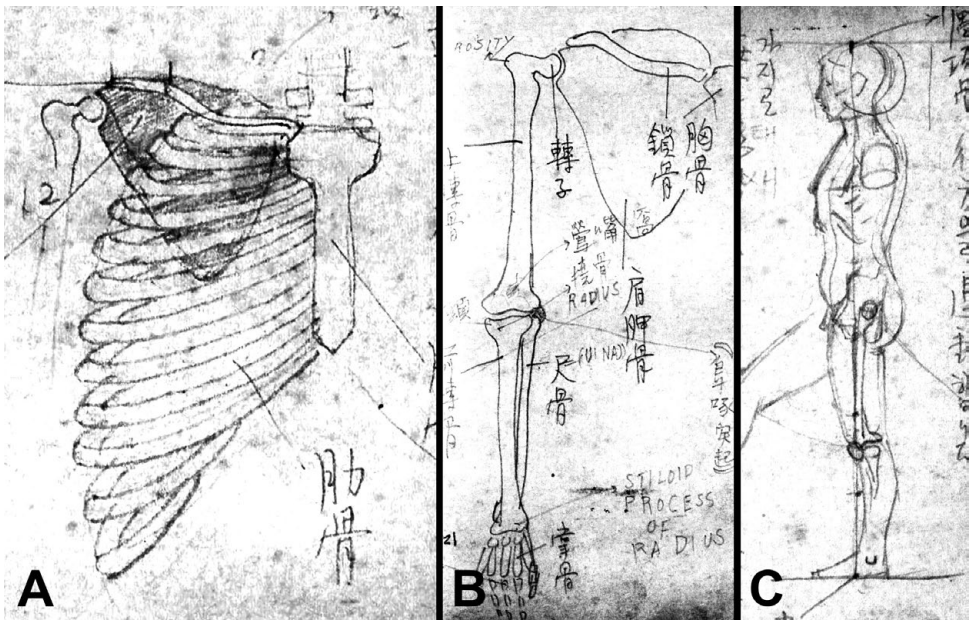


Fig. 1. Examples of anatomical error: (A) Floating rib expressed as joining costal arch. (B) The neck of the humerus is drawn incorrectly, like the neck of the femur, while characteristics of the radius and ulna, and the structure of the elbow joint are drawn incorrectly as well. (C) Line of gravity should be further posterior than the hip joint.

Table 3. Anatomically important expressions in the anatomical drawing of Lee Quede

Items	Contents	Page
Proportion	Distinction of Asians as 6~6.5 heads tall, Caucasians as 6.5~7 heads tall	1
Pronation	Loc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lna and the radius in pronation	4
Masseter muscle	The anterior border of the masseter muscle depicted as facing the medial canthus	8
Rhombus of Michaelis	An important landmark between the back and the hip	11
Calf	The medial shown as swelling toward the inferior while the lateral swells toward the superior	12
Ankle	Depiction of the lateral malleolus as characteristically lower than the medial malleolus	13
Angle of face	Depictions of differences between Asians and Caucasia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mparative anatomy	16
Skull	Depictions of differences in front-back lengths between Asians and Caucasians	18
Eye, nose, mouth, ear	Asian characteristics are drawn and categorized by shape	20~27
Movement	Movement & balance of the leg, abduction of the deltoid muscle, and flexion of the biceps brachii muscle	15, 33, 34

에 관한 그림이 11개, 눈 13개, 코 7개, 입 4개, 귀 3개, 기타 그림이 13개였다. 또한 제자 이주영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부그림 4개가 후에 추가로 삽입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3. 해부학 그림의 미술해부학적 분석

머리와 얼굴에 대한 그림이 많은 편으로 상세하게 그려졌으나 뼈 그림들은 오류가 많았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사소하게 틀린 부분이 상당수였지만, 미술해부학적으로 명백하게 잘못 그려진 내용들은 주로 뼈를 설명하는 그림으로 아래와 같았다(Table 2) (Fig. 1).

근육을 설명하는 그림들은 표면에서 관찰되는 근육의 위치를 명암으로 대략 표시한 정도로 위치나 형태적인 특징은 잘 드러나 있지 않았다. 특히 아래팔근육은 위팔노근만 표시하였고, 다리근육은 대퇴근, 하퇴근이라고만 표시하였고 설명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해부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Table 3) (Fig. 2).

미술해부학은 인체를 미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해부학으로 인체의 해부학적 형태, 비례, 동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부에 덮인 뼈와 근육의 형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표면을 표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한 각 구조들 사이의 비례와 움직임에 따른 형태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다면 인체를 보다 자연스럽고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쾌대의 해부학 그림에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형태에 관한 그림이 67개로 가장 많았고, 비례 4개, 동세가 3개 였다. 미술해부학 교재로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이 머리 부위에 지나치게 많이 할애된 점과 비례와 동세가 순서와 상관없이 배치되는 등 목차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근육 그림들은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그려져 있어 교육적으로 쓰임새가 크지 않다. 머리와 얼굴 표면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 특히 많은 이유는 미술가들 대부분이 얼굴에 관심이 많아서일 것이다. 하지만 뼈나 근육을 표본이나 모형, 또는 참고 그림 없이 오직 기억에 의지해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얼굴은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표현이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쾌대가 일본제국대학에 재학중이던 1936년에 당시 해부학교수였던 니시다가 출제한 조각과 미술해부학 시험 문제가 "눈의 표정효과와 작품의 예"와 "성인과 유아의 입술윤곽 형태의 차이"였던 점[9]과 그가 1944년에 출간하였던『미술해부학논고』에도 머리와 얼굴이 상당량을 차지한 것[10]을 미루어 볼 때 니시다의 영향도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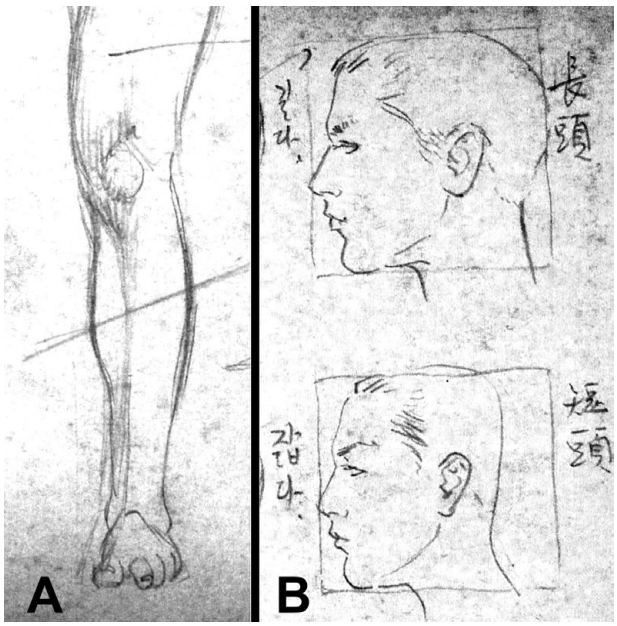


Fig. 2. Examples significant to artistic anatomy: (A) The external shape of the calf is well explained, with the medial swelling downward and the lateral more upwardly swollen. (B) Anterior-posterior length of head in comparison with that of a Caucasian head.

맺음말

우리나라 미술해부학 도입 시기에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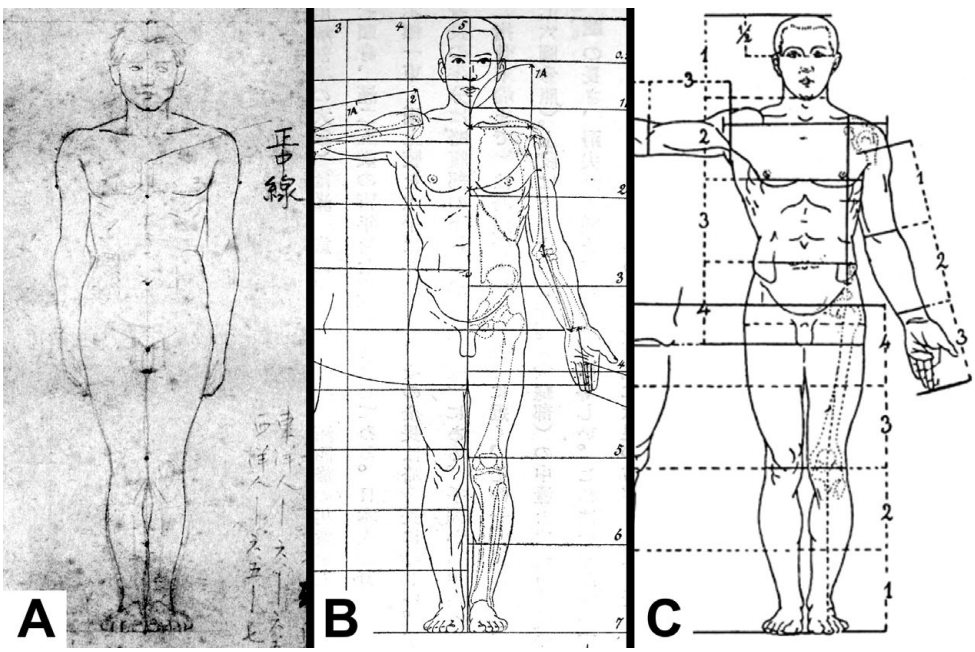


Fig. 3. Examples of full body proportions: (A) Anatomical of Lee Quede (1951). (B) Arguments on Artistic Anatomy of Masaaki Nishida (1944). (C) Anatomie artistique of Paul Richer (1890).

영향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양이나 일본에 비해 지속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된 자료 또한 많지 않다. 미술해부학에 대한 화가들의 관심이 미약했던 이유는 미술해부학이 도입될 시기의 미술 환경이 달랐다는데 있다. 서양은 이상적인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미술해부학을 탐구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연구와 그림 자료를 남길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폴 리쳐(Paul Richer, 1849~1933)를 비롯한 기존 서양의 미술해부학 자료들을 기초하여 일본인의 특징과 차이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연구가 병행되며 활발한 연구와 저술 활동이 이루어졌다(Fig. 3) [2,10,11]. 우리의 경우 일본 유학 등을 통해 미술해부학을 배웠던 화가들이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미술에서 해부학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화가들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내 미술의 흐름이 사실적 구상화 중심에서 반구상이나 비정형적인 추상화로 이행되는 시기였으므로 미술해부학에 대한 절실함이 덜했던 것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은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쾌대의 해부학 그림들을 통해 우리나라 미술해부학 도입기의 상황과 일본 미술해부학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미술해부학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작품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해부학 그림으로 증명한 국내 최초의 화가이다. 하지만 그의 월북으로 인해 당시 미술교육 현장에 널리 쓰이지 못하고 이후에도 계승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때문에 미술해부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추리고 이를 필요로 하는 미술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REFERENCES

1. 20th century Korean art questionnaire. Art In Culture. 2015; 2:64-5.
2.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Lee Quede-An epic of liberation. Dolbegae. 2015.
3. Kim JS, Lee Q. Youlhwadang Publishers an Art Library. 1995.
4. Shin SK. Lee Quede's activitie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nd 〈The Crowd〉 series. Art History & Cultural Heritages. 2016; 5:231-60.
5. Kim IH. The study of Lee Quede: Focused on human anatomical drawing book. Eye of era. Hakgojae. 2011; 115-38.
6. Kim H. The Several Aspects of Image Reference in Lee Quede's Painting - Research on the Artist's Archive. The Misulsahakbo: Reviews on the Art History. 2015; 45:191-213.
7. Kim IH. Legacy of Lee Quede - Focusing on Seongbuk Painting Institute (1946~1950). Monthly Art Magazine : Misulsegae. 2015; 7:78-85.
8. Jung H-M. A study about iconography in Korean modern painting-Religious implications.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 1998; 6:339-72.
9. Jeon HS. The Education and Recognition of Occidental Painting of Korea Students in Teikoku Art School-With Focus on Kim Man-Hyung. The Misulsahakbo: Reviews on the Art History. 2004; 22: 171-98.
10. Nishida M. Review of art anatomy. Seikisyobou; 1944.
11. Richer P. Anatomie artistique. Planches; 1890.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Lee Quede's Anatomical Drawings

Youn Kwan Hyun

Division in Biomedical Art, Incheon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Abstract : In 1951, in the midst of the Korean War, artist Lee Quede produced anatomical drawings to teach artistic anatomy to his student Lee Ju-yeong while interned in the Geoje prison camp. Comprising 2 books and spanning over 48 pages, 74 drawings were produced alongside explanations in a textbook format. The table of contents was ordered starting from body proportions, then the skeleton, the muscles, and the head. By part, there were 4 drawings of the trunk, 51 of the head, 7 of the arms, 9 of the legs, and 3 of the full body. Though the drawings of the head and face are both high in number and in detail, there were many errors in his depictions of the bones, and the boundaries between the structures of his muscle drawings were drawn so unclearly as to be indistinguishable. The essential forms, proportions and movement are included, but his disproportionate dedication to the head and the incoherent way that the book is arranged with no relevance to its table of contents leave something to be desired. It is regrettable that Lee Quede's return to North Korea meant that his drawings were not widely used, but despite this, I believe that these are invaluable documents in assessing the influence of Japanese artistic anatomy at the time, as well as the introductory circumstances of Korean artistic anatomy.

Keywords : Lee Quede, Artistic Anatomy, Anatomical Drawing, Art

Correspondence to : Youn Kwan Hyun (Division in Biomedical Art, Incheon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E-mail : artanato@naver.com